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이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는 시사점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이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는 시사점

2017. 3. 9.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

책임연구원 홍 원 표

수소차 국책사업화의 의의 및 전 과정 소개

국책사업화의 성공요인

첫째 추진위원회 이전 과정의 중요성

둘째, 추진위원회 이전 활동 단계 세분화

셋째, 선도자의 존재, 의사결정 채널로의 연결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은 크게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2012년7월을 경계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전 단계에서 정책기회를 인지하고 아이디어를 충실화하는 선도자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선도자의 제안이 의사결정 채널로 연결된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래성장본부가 출범하고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잠재적 선도자를 충남 네트워크로 포섭해야 하며, 선도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래먹거리 발굴과정에서 추진주체의 연속성문제를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틀의 발굴체계가 필요하다.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이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는 시사점

목 차

- I.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의 개요
- II. 국책사업화의 성공 요인
- III.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는 시사점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
wonpio@cni.re.kr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이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는 시사점

요 약 문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은 크게 추진위원회가 출범한 2012년 7월을 경계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로 나누어진다. 이전 단계에서 정책기회를 인지하고 아이디어를 충실화하는 선도자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선도자의 제안이 의사 결정 채널로 연결된 것이 주요한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미래성장본부가 출범하고 충남의 미래먹거리 발굴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잠재적 선도자를 충남 네트워크로 포섭해야 하며, 선도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미래먹거리 발굴과정에서 추진주체의 연속성문제를 고민하고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틀의 발굴체계가 필요하다.

I.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의 개요

01. 수소차 국책사업화란?
02. 수소차 국책사업화의 의의
03. 수소차 국책사업화 전과정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이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는 시사점

01 |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의 개요 수소車 국책사업화란?

정식명칭은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사업”

연료전지자동차의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허브 구축을 목표로 함

- 연료전지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업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연료전지자동차의 부품 성능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해 수송용 자동차 시장을 선점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17~2021년까지 5년간 총 708억 원(국비 349억원 포함)의 규모로 부품 기술개발과 기반구축 사업 추진

- 부품 기술개발에 8개 과제에 441억 원 투입
- 연구 및 평가장비 구축에 84억 원을 투자

01/11

02 | 수소차 정책사업화 과정의 개요

수소차 정책사업화의 의의

충남 최초 연구개발사업(R&D) 국비 확보

- 충남도가 연구개발사업 분야에서 국비를 확보한 최초의 성공사례
- 아이디어에서 성공까지 전 사이클을 밟음 → 노하우 축적
- '미래성장본부' 출범의 밑거름

충남 지역 연구개발R&D정책 본격화의 초석

- 지역 차원의 연구개발정책 본격화 흐름: 지역혁신체제(노무현 정부)
- 지역 차원 연구개발정책의 맹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2010),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5)

02/11

03 | 수소차 정책사업화 과정의 개요

수소차 정책사업화 쏠과정

2011-2016년까지 5년 걸림

- 2011년 10월4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수립 회의'에서 예타사업 필요성 최초 제기
- 2016년 8월13일 충남도가 예타 최종 통과 발표

대외적 노력이 공식화된 2012년 7월을 전환점으로 봄

- '수소연료전지차 실용화 및 산업육성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 공동위원장에 안희정 충남도지사, 현영석 한남대 교수

-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회의(11.10.4)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12.26)
- 수소연료전지차 실용화 및 산업육성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12.27)

- 예타 타당성 조사 TF팀 회의 개최 (12.12.10)
- 수소연료전지차 육성 용역 보고서 제출(13.7.22)
- 2015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 신청(14.10.28.)
- 예타 산업부 심사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보고 (14.12.31)
- KSTEP 1차 자문회의 (15.6.5)
- 예타 대상사업 계획 변경(수정보안) 제출(16.1.27)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산업 예타 최종 통과 보고(16.8.12)

03/11

Ⅱ. 국책사업화의 성공 요인

01. 추진위원회 이전 과정의 중요성
02. 추진위원회 이전 활동 단계 세분화
03. 국책과제화 성공요인① 선도자의 존재
04. 국책과제화 성공요인② 의사결정 채널로의 연결

수소차 국책사업화 과정이 미래먹거리 발굴에 주는 시사점

01 | 국책사업화의 성공 요인 추진위원회 이전(以前) 과정의 중요성

미래먹거리 발굴의 비밀이 감춰져 있는 단계

- 문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단계
- 상대적으로 이후 단계는 자료화, 정형화되어 있음

미래성장본부의 역할은 이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

- 미래먹거리발굴은 사실상 미래 먹거리 후보군 선정
- ‘아이디어 제시’ 과정 ~ ‘아이디어’ 의 충실화 과정

구분	이전	이후
성격	내부 합의	정부 설득
소통방식	비공식적	공식적
주도주체	다양	공무원
자료화	안 됨	잘 됨

04/11

02 | 국책사업화의 성공 요인 추진위 이전 단계 활동 세분화

정책기획 인지 단계

- 관련 산업 트렌드 + 정부 정책기조 + 충남의 기회
- 사람 또는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

아이디어 충실화 단계

- 아이디어를 사실상 기획안으로 만드는 과정 = 설득 자료 준비
- 이 작업에 대한 보상체계 문제 두드러짐

공무원 설득 단계 (= 공무원 학습)

- (담당) 공무원 설득: 주무관 → 팀장 → 과장 → 실장 → 부지사 → 도지사
- 정책 참모 라인 설득: 실과 위원회 → 도 정책자문위원회 → 정책 보좌진

-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회의('11.10.4)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증장기 발전계획 발표('11.12.9.)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계층분석 및 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용역 세미나('11.12.14.)
- 자동차부품연구원 방문 협조 요청 ('12.1.2.)
- 전북 테크노파크 방문, 벤치마킹 ('12.2.2.)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12.2.6.)
-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12.3.28.)
- 종합 진행 상황 도지사 보고('12.4.26.)
- 수소연료전지차 실용화 및 산업육성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12.7.27.)

05/11

03 | 국책사업화의 성공 요인 국책과제화 성공요인 ① 선도자(Initiator)의 존재

선도자는 정책기획 인지, 제안서 작성, 공무원 설득을 하는 사람 또는 조직

- 선도자 ≠ 아이디어 제시자
- 본 사례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장 (정책기획 인지, 제안서 작성, 공무원 설득을 모두 수행)

우리는 이런 행운을 또 바랄 수 있을까?

- 자동차부품사 연구소 부소장, 충남도 산하 조직(인재의 내부화)
- 개인 → 조직 내지 네트워크

06/11

04 | 국책사업화의 성공 요인 국책과제화 성공요인② 의사결정 채널로의 연결

담당 공무원 라인, 정책참모라인으로 연결되어야 작동

- 국책사업화 과정의 관건은 주도자와 공무원 간 상호 학습 과정
- 한남대 현영석 교수의 결합

본 사례에서 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촉진 역할 수행

- 도 정책자문위원장이 적극적 연결고리 역할
- 한남대 H 교수, 산업연구원 L 박사 등 전문가의 결합과 적극적 활동

07/11

Ⅲ. 충남 먹거리발굴에 주는 시사점

01. 잠재적 선도자를 충남 네트워크로 포섭하라
02. 선도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체계를 마련하라
03. 미래먹거리 발굴 주체의 연속성 문제를 고민하라
04. 장기적으로 보다 큰 발굴체계가 필요하다

01 | 충남 먹거리발굴에 주는 시사점 잠재적 선도자를 충남 네트워크로 포섭하라

풀뿌리 포럼, 세미나, 발표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말자

- 산업계 동향, 정부정책, 충남 상황 모두에 정통한 사람은 드물어
- 선도자는 다양한 의견 교환과 토론 속에서 자란다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대덕연구단지의 인재들을 활용하자

- 정부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정책 입안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다수 세종시 입주
-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

08/11

02 | 충남 먹거리발굴에 주는 시사점 선도자에 대한 지원 및 포상체계 마련하라

추진자에 대한 적기 지원이 필요

- 아이디어 충실화 과정에 공무원들의 지원 가장 절실
- TFT를 구성하여 선도자 지원하는 것이 적절
- 사후 포상 체계를 고민해 보자

성과를 공무원이 독식하기 쉬운 구조

- 선도자는 초반에 주도적 역할을 하나 후반기 공식활동은 공무원이 주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땅치 않아

09/11

03 | 충남 먹거리발굴에 주는 시사점

미래먹거리 발굴 주체의 연속성 문제를 고민하라

미래성장본부는 미래먹거리 후보군 제시까지 담당

- 먹거리 발굴 전 과정에서 미래성장본부는 미래먹거리 후보군을 제시까지 담당
- 그 후 현실화 과정은 미래성장본부가 책임지지 않을 가능성 있음

먹거리 발굴 과정은 추진세력을 형성하는 과정

- 미래먹거리 발굴자 ≠ 수행자로 인해 선도자가 공무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부실화할 가능성
- 선도자의 상황 변화, 담당 공무원 교체 등 외부충격에 취약

10/11

04 | 충남 먹거리발굴에 주는 시사점

장기적으로 보다 큰 발굴체계가 필요하다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노력이 미래성장본부에 국한될 우려가 있음

- 미래먹거리 발굴은 타 부서의 업무와 중복이 불가피
- 실적 경쟁으로 인해 미래성장본부와 타 부서 간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

공무원 조직보다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

- 미래먹거리 발굴 전부서 확산 위해 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해야: 모든 분야 포괄, 비공무원 조직
- 미래 먹거리 발굴의 의무화보다는 인센티브로서 장려하는 것이 효과적

11/11

감사합니다.